
한무숙 문학의 번역세계 조명

Young-Key Kim-Renaud 김 영 기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

개요

한무숙 문학의 번역 세계는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1 1961년에 단편소설 『월운』이 주요섭(?) 번역으로 “The Halo Around the Moon”라는 제목으로 당시 국제PEN Club 한국 중앙 지부 출판으로 나온 것으로 시작하여 여러 나라 대학 출판사에서 발탁되어 출간되고, 최근 2016년 장편소설 “석류나무집이야기”의 영역본이 The House of Pomegranate Trees 라는 제목으로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으며 2017년에는 코넬 대학에서 출판된, 김영희 교수가 편집, 번역, 해설한 Gendered Landscapes 라는 책 속에 한무숙의 단편소설 『월운』이 새로이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한무숙은 50년의 창작 활동을 하였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지 25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번역자들의 관심을 받고 55년 이상에 걸쳐 세계 여러 말로 소개되어 왔다.2 한무숙문학 번역의 역사는 현대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한무숙 문학의 번역자는 물론, 번역의 종류, 목적과, 과정, 비용충당과, 출판사, 독자들 등, 사정이 그 양태가 가지각색이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안정됨에 따라, 번역 세계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번역물이 나오게 하는데

1 이 논문을 준비하는데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한무숙작가 해외 번역 도서 출간 목록”은 문학번역원의 박찬우 팀장님이 보내신 자료와 표로 시작하여 보수 작성하였다. <만남>의 첫 외국어 번역가 김옥영씨의 한무숙과의 개인 인간 관계에 대하여 추억을 더듬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 외 일본에 계신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 교수와 엄기주(嚴基珠)교수, 하와이 대학의 김영희 (Yung-Hee Kim) 교수, 그리고 조지워싱턴대학의 강윤경 (Yunkyoung Kang) 교수에게 열심히 도와주신 데 감사드린다.

2 Charles Montgomery는, 2016년 6월 4일에 출판된 (<https://www.ktlit.com/early-korean-modern-literature-collected-short-stories-from-korea/>) 서평에서, 55년 전 1961년, 한국 문학 번역사상 두 번째로 출판된 단편소설집, Modern Short Stories From Korea (현대 한국 단편소설집)에 포함된 작가를 개인 개인 논하면서 단편 소설 “월운”의 작가 한무숙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Hahn is a revered and critically lauded author who wrote for five decades (한[무숙]은 50년 창작생활을 하여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아온 작가이다).” A. L. McLeod (1962)도 이 책의 또 하나 서평을 했는데 이에 대하여 언급은 안 했으나 이 문집에 포함된 14명 작가 중 여성은 최정희씨와 한무숙씨 둘 뿐이었다. 그 두 작가만 “Mme”이라 특별히 붙여 그들이 여성임을 강조했다 (McLeod 1962, URL: <https://www.jstor.org/stable/40117042>).

기여했다고 본다. 물론 이중 언어가 가능한 번역자가 늘고 그들의 언어문화적 경험과 지식이 늘게 된 것과 원작자들의 세계의식이 더 강해지고, 또 한국 언어와 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익숙해진 외국인이 많아진 것도 번역의 양과 질을 높이게 한 이유가 되었다. 한무숙의 번역 작품들은 미국 등, 여러 영어권 대학 내지 그에 준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교과서로 선택될 정도이고 세계 여러나라 고등 학술지에서 서평을 받아 세계의 작가가 되었으며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한국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서문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다. 즉, 한참 안 보는 사람은 잊어버리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운명적으로 오래 동안 서로 떨어져 살며 서로의 “풍요한 부재”를 언제나 옆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껴왔던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말이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향해서 더욱이 그렇다. 돌아가신지 25년이 넘는 한무숙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도 동감이신 것 같아 그 유가족의 하나인 나로서 감개 무량하고 고맙기 그지 없다. 너무 여러분이 애써 주셔서 다 감사의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구명숙 교수, 김호기 한무숙 문학관장과 나운지 한무숙 문학관 학예사, 그리고 서울특별시, 한무숙 문학관, 숙명여자대학교 등 제 후원자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한무숙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서게 된 것은 그 만큼 한무숙 작가가 우리와 인연이 있는 분으로서의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가 남긴 객관적 예술의 향기때문일 것이다. 나 또한 그의 장녀로서 보다는 당신의 장편 소설, 단편 소설, 수필, 그리고 학술 논문을 번역해 본 번역자로, 한무숙 작품의 외국어 번역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영어 번역문을 통한 한국 문학을 외국에서 오래 가르친 교수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 문명 속에 떳떳하게 참석하도록 한국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문적으로 탄탄히 설립시키는데 일생을 바쳐온 한국학 교수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한무숙의 문학이 어떻게 외국에 전파되고 받아드려졌는지 포괄적으로 다 다루기에는 역부족이고 이 논문의 영역을 훨씬 넘어설 일이겠으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생각해보고 장래 한국 문학 번역에 더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입문

한무숙 (1918-1993)은 일생 병약하여 다섯 자손의 맞인 나는 중학교 때부터 그의 “유언”을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그가 만 74세까지 산 것도 우리 모두 고마워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맑은 정신과 수많은 사람에게 보인 깊은 관심과 배려로 영원히 사실 것 같은 그 분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 자신 세상이 까매진 기분에 지독한 기관지염까지 걸리어 어머니와 같이 마차 타고 훨훨 황야로 가는 꿈을 꾸고 나도 따라 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미국에 돌아와서도 낮에 어머니 환상과 직접 대화한 후 무서워지기까지 하였다.

정신을 좀 차리고 난 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를 기념하는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때 어머니의 별세를 슬퍼하고 어머니 추억을 말하는 가족, 친지들한테서 위안의 말을 받을 때 마다 그 가슴 저리는 말들을 모아 어머니 추모집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가족 전체에게 들었다. 생전에 자신이 바쁜 생활을 하시면서도 외조를 하신 아버지가 앞장 서서 이호철님과 같이 편집을 맡으시고 나온 책이 <풍요한 부제>이었는데, 다국어가 들어간 훌륭한 저서가 되었다.

나 개인의 입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한이 있었다. 그것은 십여년을 들었다 놓았다 한 어머니 장편 소설 “역사는 흐른다”의 번역이었다. 몇 번째 수정은 했으나 아직도 초고 상태로 어머니에게 보이지도 못하고 어디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못 보시게 되었지만 영혼이라도 기쁘게 해 드리려는 마음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 대작이 세상에 소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갑자기 나를 초조하게 하였다.³

한편, 어머니 작품을 좋아하면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꽤 되고 그 중 여러 명이 나한테 위로의 말을 전해 오는 것을 보고 단편 소설을 영역하여 한 권의 단행본을 출판하여 어머니에게 우리의 사랑, 존경, 그리고 그리움을 보이고 상처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달래 보자는, 즉 일종의 Festschrift로 영어 번역 단편소설집을 출판 하자는 생각이 그 때 난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전집 중 서너권에서 단편들의 제목을 목차에서 복사하여 영어를 잘하고 문학에 취미있는 친구들 한 20명에게 돌리며 번역사업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을 모았다.

하나 놀란 것은 여러 친구들이 즉시 답장을 해 주었는데 한 단편을 빼놓고는 한 작품을 서로 번역하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열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작품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한국 작가 중 한무숙 작품이 가장 많이 번역된 경우의 하나이었고 반 세기를 넘어 계속 번역작품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 하였다. 즉, 한무숙은 어느 카테고리에 집어 넣기 어려울 정도로 그 작품의 소재, 구성,

³ 그러나 언어학을 본업이고 계속 학교에서 더 많은 책임을 얻고 행사도 많이 하다보니 장편 소설 “역사는 흐른다”번역은 더 지연되어 십년이 지난 세월이 더 지난 후에야 출판할 수가 있었다.

다루는 인간상,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화자의 각도가 달라서 내 친구들 각자가 선호하는 작품이 이렇게 다 달랐고 그래서 다양한 번역자들이 한무숙의 작품을 택하였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다른 본업이 있었고 그리고 번역이란 해놓고도 자꾸 바꾸고 싶은 것이라 약속한 원고들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사람이 보낸 것으로만 얇은 책을 낼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차에 이미 보낸 사람 중 몇이 특히 젊은 학자들이 빨리 출판하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우선 문예지 Korean Literature Today (KLT, 문예지) 에 투고하기로 하였다. 다행이 100%가 다 선정되어 첨부물에서 보다시피, 삼 호에 걸쳐 새로 번역된 단편 소설들이 다 출판이 되었다. 그리하여 단행본으로가 아니라 영문으로 된 문예지가 추도록이 아니라 추도의 작품 시리즈로 세 권에 걸쳐 나오게 되었다.

한무숙의 한국 문학사적 위치

KLT에 제일 첫 번 실린 것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용기에게 보내는 “우리 사이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편지식 단편의 번역 본이었는데 KLT문예 학술지 서문에 올린 한무숙 소개가 흥미로웠다. 즉 “일생 편견으로 고난을 받은 여류 작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한무숙이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5년전 돌아간 그가 생존해 있었다면 80세가 되었을 것이기에 이 기회에 그의 “인식되지 못했던 천재성에 특별히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이 글을 이 호에 올리며 다음 호들에 다른 작품들이 연재될 것이라”고 하였다. (“One major woman writer who had to suffer particularly from prejudice during her lifetime was Hahn Moo-sook. She died about five years ago; if she had lived, she would e celebrating her eightieth birthday. In special tribute to her long under-recognized genius, we are publishing one story by her in this issue. Others will follow.” Lee and Anthony 1998: 4)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본인들의 선입견을 보이는 이러한 언급은 이 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이 학회에서는 한무숙이 억울하게 받은 “편견”에 대하여 장황히 논하는 것이 본 주제에서 좀 떨어질 뿐 아니라 거기 합당할 만큼 넉넉한 시간을 부여할 수도 없으니 넘어가기로 한다. 단 몇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돌아가신지 사분의 일세기가 지난 오늘 날까지,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을 때 흔히들 내이름도 빼고 “한무숙씨 딸”이라고만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소개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존경을 느낄 수 있다. 한무숙은 1940년대에 20대 젊은 나이에 큰 문학상을 타고 그 후 한국문학 대상 등 명성있는 문학상과 예술원상, 국가 문화 훈장도 땀다. 우리 중, 고등 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한무숙 작품을 읽었다. 각종 문

인회 협회장을 역임하고 예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한무숙은 여성, 남성을 합하여, 당시 한국 작가로 국제 PEN 대회에서 영어로 발표한 오직 하나의 한국 문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 큰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도 하였다. 1960년대에 벌써, 지금은 없어졌지만 권위있는 잡지 “Life”, LA Times, 스웨덴 조그만 지방 신문기자하고도 영어로 interview받아 사진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소개되었다. 최초로 미국 대 대학 출판사에서 그의 장편 소설 둘의 번역 작품이 출판되고 학술지, 문예지, 신문 등에서 전문적 서평을 받고 그 책들은 여러 대학이나 그에 준한 프로그램에서 교과서, 아니면 참고서로 쓰이고 있다. 어째서 그가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들 하는지 영원한 수수께끼 같이 느껴진다.

한무숙 문학 번역의 변천사

최근 한국문학의 번역의 질과 양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뛰게 되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제일 큰 원동력을 준 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으로 한국의 위상이 월등 높아졌고 한국인들 자체가 자신의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남이 알아주는 데서 새삼스럽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세계 시민이 되어 간 사실에 있었다고 본다. 여기에 전에 드물게 번역 활동에 박차를 가한 것은 2001년에 설립된 한국 문학 번역원이다. 번역원이 생기기 전에도 한국학과 한국 문학의 세계적 발전을 위한 한국의 공적, 사적 기관들의 노력이 벌써 20세기에도 역력하였다.

신경숙 작가의 경우 2008년 출판된 <엄마를 부탁해>의 영역, Please Look After Mom이 2011년 맨 아시아 문학상 (Man Asia Literary Prize)을 탔다 (신경숙 3만불, 김지영 5000불). 초판 10만 부를 소진하고 출간 십여 일 만에 5쇄를 찍었으며, Amazon.Com의 순문학 베스트셀러 에 올랐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까지 오르면서 주 언론에서 호평을 받으며 다른 외국어로도 번역이 계속되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ibrary1004&logNo=30115145053>). 신경숙에 이어서 2016년에는 한 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의 영역 The Vegetarian이 한국학을 전공한 젊은 영국인 번역자 Deborah Smith의 노력으로 이름있는 출판사 Portobello Books에서 나와 뉴욕 타임스와 가디언 등 주 언론에서 호평을 받으며, 영어로 번역된 작품과 작가, 번역자에게 주는 맨부커 국제상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타 한국 문학 번역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 번역 세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는 한국 문학이 외국에 전달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여기 가장 큰 장애물은 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비극이 동족

알룩/전쟁이라는 비통하고 한국 발전의 발목을 묶는 상황이 계속 하는 동안 외국에 한국 문학을 전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엉뚱하고 실패가 뻔한 사치로 보였다. 즉, 한국인들은 열등감과 비관적인 장래에 인내심과 연구,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학 작품 번역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다. 특히 한국어를 통달하고 문학적 소질을 겸비한 외국인은 더욱 만나기 힘들었다. 한국인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한무숙은 이런 환경에서 창작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본인과 이러한 집안의 특정한 분위기는 그에게 외국인과 접촉을 하며 본인의 생각과 표현이 그들의 흥미를 끄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예술인과 철학, 종교인들을 환영하고 매마른 사회에서 생각이라도 고도하게 살아보자는 제 문인들과, 예술인, 교수 등이 우리 집을 마치 오아시스 처럼 드나들었다. 그 당시 소위 “인테리” 들은 대개 다방에 가서 커피나 홍차 한 잔 시키고 하루 종일을 보내며, 비슷한 그룹과 토론하고 비슷하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들이 문화인이고 문명인임을 자각하며 서로 일깨어 주어 그동안이라도 주위의 여러 비참한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한무숙과 그의 부군 김진홍은 자선 사업을 할 정도로 부유하지 않았지만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나누어 먹으면 얼마든지 손님을 맞이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문학, 예술, 철학에 관심이 있다면 아무나 가리지 않고 환영하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서울 사람, 지방 사람, 한국 사람, 외국인까지도 우리 집을 드나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어령선생은 옛날에 “명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우리 명륜동 집에 와 보지 않은 사람은 한국의 예술가/인테리라고 볼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

한무숙 집을 찾은 손님 중에는 지방에서 온 가난한 하숙생, 잘 사는 집의 문학 청년, 미군 일등병, 스웨덴 장군, 스위스 대사, 필 벅, 전 업다이크, 가와바타 야스나리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각종 외국인들이 우리 집에 가까이 드나들게 된 이유의 하나는 곁에서 보이는 가난과 부조리에 가득찬 한국에 이러한 문화적 환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들은 놀람과 존경, 기쁨을 동시에 느끼며 한국에서 무엇인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국민이 오셨을 때도 주최자들이 그들을 명륜장으로 모시고 왔다. 특히 그 집은 전통 한옥이었지만 외국인이 와도 불편하지 않게 현대 시설로 개조하여 “한국”을 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었다. 물론 이 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한무숙이 문화 예술인 중 예외로 영어 회화가 가능했고, 경제계에 종사하고 있던 그의 부군 또한 예외로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무숙은 이런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만나고 토론한 경험으로, 무슨 후렴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하나의 철저한 진리, 그리고 그를 인도하는 철학으로 받아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식 삶과 생각이 외국인에게 흥미가 가는 것을 인지하고 자기 작품을 번역해 외국 세계와 나누고 싶어졌던 것 같다. 이 것이 그 당시 예외적으로 한국 작가 중 작품이 외국어로 많이 번역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라 믿는다.

한무숙의 작품 중 최초로 외국어로 출판 된 것은 단편소설 〈월운〉으로 1961년 한국 번역 역사 상 두 번째로 출판된 주요섭이 편집하고 국제 PEN협회의 한국 지부 본부에서 발행한 Collected Short Stories from Korea 에 포함되었다. A. L. McLeod (1962) 의 서평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집에 포함된 작가가 14명이었는데, 그 중 여성은 최정희와 한무숙 둘 뿐이었다. 그 두 작가만 “Mme”이라 특별히 지칭을 붙여 그들이 “여류작가”임을 강조했다 (McLeod 1962, URL: <https://www.jstor.org/stable/40117042>).

한무숙 작품만 수록한 선집이 나온 것은 1965년에 휘문 출판사에서 발간된 In the Depths (감정이 있는 심연)이었다. 번역자들은 거의 가 다 한무숙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작가 아니면 평론가 아니면 다른 인문계 친지들이었다. 오인환 외 저 “영역된 한국문학 작품들: 비판적으로 본 도서목록”에서 한무숙의 첫 영역 단독 번역본에 대하여 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저자의 넓은 폭과 발전을 보이기는 하나, 아홉개의 작품들은 영어의 질이 고르지 못하다. 1965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국제 PEN 대회에 가지고 가려고 출판한 것이라 급히 서둔 흔적이 보인다 (Though the collection allows insight into an author’s range and development, the nine stories are quite uneven in English. Produced to take to the International P.E.N. Congress in Yugoslavia (1965); signs of haste in publication show.)” (Oh et al 1976: 100).

같은 서평에서 그 후 1967년에 정종화 영역으로 문왕사에서 출간 된 한무숙 단독 저자의 선집, The Running Water Hermitage (유수암)에 대하여 평하며 In the Depths보다는 더 고르고 덜 성급히 만들었다. 단편으로는 긴 세 작품이 들어 있다”고 했다 (Oh et al 1976: 100). 출판되지 너무나 오래 있다 나온 서평이고 문학작품 자체에 대하여 논평이 없어 이 번역에서 무슨 결과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재어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때 번역의 동기와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의미에서 상당히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한국문학번역의 세계화의 산실: 한무숙문학의 번역의 출판의 항해와 의미

한무숙 작품이 처음으로 외국에서 출판이 된 것은 “Shadow (그늘)”이라는 단편 소설인데, 1974년 Mario T. Gattbonton이 편집한 Asian and Pacific Short Stories (아시아태평양단편소설집) 에 실린 것이다. 이 것은 the Asian Pacific Council (ASPAC)이 9개국에서 각 나라에서 두 작품을 선발하여 발행한 문집이었고, 총 편집자인 Gattbonton은 9개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이러한 문화 교류를 하면서 후세들이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였다. 한무숙의 “Shadow (그늘)”는 오영수 작가의 “Seaside Village (갯마을)”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여 뽑힌 작품이었다. 기록을 보면 한무숙의 “그늘”은 당시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있던 영국인 Richard Rutt

신부가 영어로 번역한 것을 휘문출판사에서 1965년에 출간했던 작품인데, 명확히 원래 출판사의 양해를 받고 재판을 한 것이다.

1980년 대 부터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흥미도 점차 오르기 시작하고 특히 미국 제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국문학의 번역이 외국에서 출판되는 데 대한 희망이 늘고 가능성도 있게 되어, 점점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았다. 1983년 한국문학번역회 (The Korean Literary Translation Association)는 볼티모어 (MD) 에 있는Gateway Press라는 출판사와 협약을 맺고 한무숙 (6), 임수일 (2), 구인환 (2) 세 소설가의 영역 작품을 모아, 한무숙 소설 하나의 제목을 따서 The Hermitage of the Flowing Water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였다. 외국에서 출판되었다고 외국 독자에게 더 잘 전달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이 증명하였다. 이 책에 대하여 어디에서도 정식 서평이 나온 것을 본 일이 없다. 즉, 이 것은 한국 사람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좀 달래주었는지 모르나 중요한 목적, 즉 현지 독자에게 인정을 받고, 읽히어 한국 문학과 한국에 대한 관심과 더 읽고 싶은 호기심이 나게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한무숙의 문학 작품이 처음으로 번역 전문가에 의하여 번역이 된 경우는 1953년부터 미국에 살고 있던 김옥영 (Ok Young Kim Chang)이Encounter라고 제목을 붙이고 영역한 장편소설 〈만남〉이다. 김옥영은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영문과 학부를 나온 수재로 대학원에서는 도서관학을 공부하여 서사로 일하다가 당시Yale대학에 속했던 Human Relations Area File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당시 동양학부를 담당했던 한국학의 선구자 전해성박사를 돕고 그후 전박사가 설립한 동암연구소 (East Rock Institute)에서 Bibliograph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English편집을 돕고 있던 중, 1984년 문예진흥원의 전신인 한국문학진흥재단 (Korean Literature Foundation)에서 모집한 번역상에 응모해서 신인상을 받은 대가로 막 연재하기 시작한 한무숙의 〈만남〉을 영역하는 계약을 받았다. 이럴 정도로 한무숙의 작품은 나오기도 전에 대작이 나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전문가들에게 주고 있었다.

1984년부터 1년동안 〈한국문학〉에 연재한 〈만남〉은 1986년 6월 정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는데 그 해 11월 대한민국 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적합한 작품이 나올 때만 주는 고도의 명성을 가진 상이었다.

김옥영은 〈만남〉번역을 하면서 그 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만남〉의 문학적 가치는 말할 바도 없거니와 그 내용이 학문적 연구 없이는 도저히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예일 대학 도서관의 광대한 동양학 문헌과 또 신학교의 수많은 종교 전도사 자료를 이용했다. … 내가 이런 풍부한 문학 작품을 영어로 옮길 수 있다는 긍지에 가슴이 부풀어 오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김옥영 1993: 117). 이렇게 힘든 번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일단 번역이 끝났을 때 김옥영은 보조비 받은 번역자의 임무로 초고를 제출하였던 바, 번역비를 충당하

었던 기관은 교정도 안 본 원고를 그대로 인쇄를 하여, 1986년 "Crescent"라는 "미국" 출판사에서 ISBN 번호 까지 넣어 "출판"하였다.

한무숙 작가는 훌륭한 번역자가 정식으로 청탁을 받아 한국 문학 대상 수상 작품 <만남>을 정성드려 번역 하였고 그것이 외국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에 자신이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그 출판을 기뻐했다. 그 때 나도 한 copy를 얻어 보았는데 첫 장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 하였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책이 누가 부러 장난을 해도 그랬을 수 없을 정도로 오자로 가득찬 것이었다. 그 당시는 컴퓨터 파일을 그냥 입력하는 시대가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새로 타이핑 하여 출판을 하는 때였는데 그나마 타이피스트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몇개 오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었다. 그런 것을 장본만 어쩐지 하여 책으로 만들고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런 책을 사방 외국에 있는 도서관에 배포를 하였으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것도 당시 그 보조금의 예산에 그런 배포하는 비용이 들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 감도 못 잡다가, 정신을 가다듬어 ISBN 본부에 연락을 하여 보았다. 알아본 즉, 그 출판사의 이름은 원래 있다가 없어진 회사의 이름이었고, ISBN번호는 완전히 조작한 것이었다. 외국에서 출판했다는 것은 물론 거짓말이었다. 무명의 출판사에서 개인이 허영으로 찍어 낸 것 보다 수만배로 수치스럽고 화가 치미는 일이었다. 그 때 한무숙과 나의 절망감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었다. 더 놀란 것은 그 "출판"에 관련하고 일을 추진한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문인/교수이요 한무숙과 꽤 친한 문우이었던 것이다.

한무숙은 그 분이 유명하고 권위있는 분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에 와서 벌집 쭈셔 놓아야, 누구한테도 도움이 못 되는 일기에 마지 못해 이름은 안 밝히겠다. 항상 인간 관계를 중요시 한 한무숙은 하나의 재난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장래 평화를 위하여 그냥 눈감아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까지 말은 하였으나 그 마음 속의 비창을 나는 너무도 잘 보았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둘은 ISBN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할 생각을 하니 어딘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도 같았다. 한무숙의 이름이 거기 엄연히 출판되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 정식 출판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다.

그러던 몇년이 지나, 1989년, 나는 우연한 기회로 아직 제대로 해를 못 본 이 책의 영문 번역본에 대하여 세계적인 대 출판사, 가주 대학 출판사의 원고 수집 (Acquisitions) 편집인 과 우연히 개인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그가 연락한 이유는, 문학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언어학 관계 원고를 그 출판사가 심사 중이었는데 나한테 의뢰하여 내가 보낸 평가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더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러 전화를 한 것이었다. 우선 사무적인 토론이 끝난 후,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정이 있다 하면서 이 끔찍한 경험담을 이야기 하니 이

소설의 내용과 번역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 듣더니, 자기한테 원고를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보내 보라고 했다. 그 때 나는 정신이 번쩍 나서 자료를 모으면서 드디어 그 대 출판사에서 책이 나올 가능성에 흥분한 동시에, 그 전에 나온 책의 존재가 결국은 무시 못할 장애물이 될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한무숙과 달라, 그 출판에 관여했던 재단 책임자와 가까운 인간 관계가 얽힌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상대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드디어 내가 ISBN에 연락했었고 그 출판사는 유령 회사를 알아냈으며 이 것이 보통 범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보니 본인이 알고 그러진 않았는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 듣는 듯 하여 나는 그 때 그 책임자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처음에는 완강히 항의까지 하고 오히려 꾸꾸로, 혹시 미국에서 새로운 번역본을 출판할 경우, 아무리 수정을 하더라도 "재출판"을 한다면, 자기네가 먼저 판권을 가졌었음을 고집하였다. 결국은 오래 동안 결정이 안 나가, 내가 무서운 무기를 안고 있는 것을 알고는 얼마 안 가서 1988년 8월 3일공식 편지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출판물 번각권 포기서"를 한무숙에게 보냈다. 이렇게 하여 일단 한 숨은돌렸으나, 외국 여러 곳에 있는, 눈에 가시가 된 이 책들은 이미 카탈록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된 것도 언제 되어 독자들에게 읽힐지 모르는 일이라 우선 그 해결책을 몰랐고 공식 포기서는 받았지만 가주 대학 출판사에서 이 여러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첫단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숨 죽이고 있었다.

미국 대학 출판은 돈을 벌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질, 즉 학문성과 우수성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출판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걸친 심사를 거치고 나서 출판사가 이 저서가 자사의 사명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출판 결정을 하고, 그 후에 또 종류에 따라, 하나 아니면 여러 차례의 원고 수정 절차를 밟은 후에야 인쇄로 들어간다. 즉, 발탁 수준이 그만큼 높은 데다가 흔히 또 수정을 요구하여 그리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일단 채택이 되어 출판이 되면 인정받는 저서가 된다. 그리고 학술지, 대중 신문, 잡지 등에서 전문가들의 서평을 출판하는 것이 상례이다.

여기에서 이 심사과정에서 물론 제일 중요한 사람이 원고 수집 편집인이다. 회사라면 회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입구를 막고 제일 무서운 심사를 하는 사람이 이 원고 수집편집인, 아니면 그냥 편집인이라고 하는데 제일 경험이 많고 유식하며 덕이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는다. 가주 대학 출판사의 Betsey Scheiner 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매섭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지만 일단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에는 전적으로 저자/번역자/대리인의 변호인이 된다. 그러나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익명 심사를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무숙의 Encounter는 너무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한국 현대 문학, 특히 장편 소

설이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일이 없어서 익명 평가자들이 더욱 의심의 안경을 끼고 심사를 할지도 몰랐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하였다. 그러나 한무숙의 번역문 원고를 읽은 익명 심사자 중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격찬을 하며 이 소설을 허먼 멜빌 (Herman Melville)과 레오 톨스토 (Leo Tolstoy)에 비교했다. 특히 전쟁 씬도 없는 이 소설이 <전쟁과 평화>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Betsey는 그 심사원이 보낸, 찬사로만 가득찬 세 페이지의 평가문을 나에게 보내주었다. 두 번째 평도 호평이었고 대체적으로 칭찬을 했지만 지금 유감스럽게도 그 copy를 찾을 수가 없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문구가 없다.

첫번째로 미국 대출판사에서 출판 된 한국 현대 장편소설의 영역 <Encounter>에 대한 외국 전문지, 학술지, 일반 독자들의 반응

출판이 되고 나서는 Encounter 는 예측대로 여러 주요 학술지에서 전문가들에 의하여 서평을 받았고 거의 모두에게 많은 찬사를 받으니, 한국 문학이 드디어 세계에 당당히 소개되고 세계 수준에 맞추어 손색이 없다는 인상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여기 참고로 몇 개만 발췌하여 소개한다:

“Recommended for literary collections (도서관 구입을 충고함).” - D.E. Perushek, Univ. of Tennessee Libs., Knoxville, Library Journal [도서관학, 학술지, October 1, 1992, Copyright 1992 Reed Business Information, Inc.

“A richly detailed historical novel(풍부하게 구체적인 역사 소설)…”; *Translation Review* [번역에 관한 학술지]40, 1992

“Based on meticulous research, Hahn recreates the life of the great scholar, popularly called Tasan, and his nephew, Ha-sang, who was martyred in 1839(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한[무숙]은 다산이라고 잘 알려진 위대한 학자와 1839년에 순교한 하상의 인생을 재구한다)…”*Korea Newsreview* [한국 뉴스리뷰], December 12, 1992

“…an instructive introduction for Westerners to an important chapter in the development of a vibrant Christianity(활기찬 기독교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장을 서구인들에게 교육적으로 소개함)…”-- *First Things*

[새로나온 것들, 학술 도서 안내서] No. 31, 1993

“Hahn’s characters capture the reader’s attention, and the reader comes away with a sense of having really encountered the characters(한[무숙]의 인물들은 독자를 사로잡는다. 독자들은 인물들을 직접 만난 인상을 갖는다.” -- *Korean Culture* [한국문화], Fall 1993

“one of the only books in English for non-specialists that deals with the Yidynasty”(이조시대를 다루는 비전문가들을 위한 드문 영문 책); *Far Eastern Economic Review* [극동 경제 리뷰, 학술지]

“As history, this book is the product of deep and meticulous research into various aspects of nineteenth-century life, customs, and values, ranging from the intellectual to the vulgar. In addition to her presentation of Neo-Confucianism, Buddhism, Catholicism, court and political life, and social structure, Hahn Moo-Sook also gives us real, detailed, and believable descriptions of wayside taverns, shamans and their performances, slaves and their lives, the rigors of travel without modern conveyances, sickness and death, clothing, food, and ignorant bigotry.”(역사 소설로서, 이 책은 고도의 지적인 면에서부터 통속적인 데까지 19세기 생활, 습관, 가치관의 여러 양상을 깊이, 철저히 연구한 결실이다. 한무숙은 신유교, 불교, 구기독교, 궁중 생활, 정치 생활, 사회 구조의 묘사 외에도, 실감나고 세심하며, 신빙성 있는 길가 주막, 무당과 그들의 공연, 노예들과 그들의 생활, 현대 수송 시설 없이 하는 여행의 힘듦, 병과 죽음, 의상, 음식, 무식하고 편협한 태도의 모습도 보여준다); *Journal of Asian Studies* (아시아학 학술지), May 1995.

“*Encounter* … is a work of fiction, a novel. Yet it also is a window on Korean social history, and Korean studies students will find it useful in many ways. It is not an easy read, and if I were to teach with it I would want to develop some materials to help readers master the genealogies, geography, and folkways that enrich the book for Koreans and Korea specialists. It is a book that should be approached with energy, one that repays effort with rich enjoyment.” (<만남>은 허구적 소설이다. 그러나 또한 한국 사회 역사를 드러다보게 하는 창이다. 한국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책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쉬운 책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학생들이 가족 관계, 지리, 민속을 알아듣기 쉽도록 교재를 준비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노력할 수록 깊이 즐길 수 있는 책이다); *Korean Studies* [한국학 학술지], Vol. 19, 1995. by Donald N. Clark. Pp. 189-193.

“The novel *Encounter* is distinguished by Hahn [Moo-Sook]’s ability to produce great fiction at the same time that she chronicles an actual historical event. … Her style is as graceful and articulate as she was. Further, her descriptions are as sentient, spirited, and youthful as she was, even in her old age. … Hahn [Moo-Sook] is still meeting us and she is living next to us through her work *Encounter*. The greatness of literature is none other than that.” (장편소설 <만남>은 한무숙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동시에 위대한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차별화된다. … 그의 문체는 저자 자신 처럼 우아하고 또렷하다. 나아가, 그의 묘사는 저자 자신이 노년에도 그랬듯이, 절실하고 힘차며, 젊음이 넘친다. 한무숙은 그의 작품 <만남>을 통하여 아직도 우리를 만나고 있다. 바로 그 것이 그의 문학의 위대함이다.; 최인호), Sigur Center Asia Papers [아시아학 학술지] (2000).

“Written by the well-known author Hahn Moo-Sook (Han Musuk), *Encounter* is held in high esteem and has enjoyed a considerable popularity… [W]hile *Encounter* unfolds along the intellectual and religious trajectory of Korea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it focuses on Tasan's psychological conflicts and spiritual growth. This emphasis on the interiority of the preeminent scholar's individual self places it at odds with the more minjung-oriented literature of anonymous persons of the 1980s. … *Encounter* displays a holistic approach to history, and problematizes the question of Korean modernity as a fundamental question of state of being. One immediately notices that the novel's vision of modernity is distinct from the accepted Western version of secularism and anti-clericalism. … [R]eligious spirituality is equated with freedom rather than tyranny, and with progress rather than constraint. In fact, the protagonist's search for spiritual completion is depicted as heroic in the novel and it seems to parallel the political rhetoric of the 1980s which mythologizes as epic the people's struggle to achieve freedom.” (Haboush 2001) (유명한 작가 한무숙이 쓴 <만남>은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아온 작품이다… <만남>이 19세기 초 한국의 지적, 종교적 사선을 그어나가지만 이 책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다산의 심리적 갈등이 오 정신적 성장이다. 이렇게 첨단 학자의 개인의 내면에 중점을 두는 것은 1980년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민중 경향의 문학과 대조가 된다. <만남>은 역사를 전체를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 현대성의 문제를 존재의 상태의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소설의 현대성에 대한 생각이 서구에서 받아지고 있는 세속주의와 반 종교주의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다. … 종교적 영적인 면이 독재보다 자유라 여겨지고, 억압보다는 진보로 간주되는 것이다. 사실, 주인공의 영적인 완성은 이 소설에

서 영웅적인 것으로 묘사되었고 자유를 갈망하는 민중의 분투를 하나의 서사시로 신화하는 1980년대의 정치적 수사학과 대조가 된다.) *Constructing Nationhood in Modern East Asia* (Haboush 2001) [현대동아시아의 국가형성에 관한 논문집]

그러나 무엇에 관해서든 사람들의 의견은 여러 안목에서 들어온다. 보통 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그냥 재미로 읽으며 어떻게 느꼈나 하는 것도 그 출판의 효과를 보인다고 본다. Amazon.Com에 써 넣은 평이 상당히 날카롭다. 여기 발췌해 보면:

Korean literary classic explores 18th-19th C. philosopher's life

By Book Oblateon January 24, 2008

Format: Paperback

“A must-read tour-de-force for anyone with even a slight interest in Korean history or literature. Tasan was a highly regarded Confucian scholar, who chose a life of poverty and scholarship, and to learn more about Catholicism, which had just entered Korea via the Jesuits in China (a Bible was brought from Beijing during one of Korea's regular tributary visits to its suzerain leader). Less than a Christian testament, this exceptional narrative reveals a precise picture of 18th and 19th century Korean life, politics, class and culture. Hahn explores a deeply thoughtful and informed internal struggle, and how Confucian and Christian ideals, when realized, are compatible. This is a Korean literary classic, in translation. (한국역사나 문학에 흥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한[무숙]은 깊은 사려와 지적인 명상속에 일어나는 내적 분투를 탐구하며 유교와 기독교의 이상은 다 이루어진다면 서로 비슷한 데가 있다는 사실을 추구해 본다.이 책은 번역된 책중 한국의 고전이다.)

그리고 여기 <만남>를 역사 과목 교과서로 쓴 캐나다 대학의 Don Baker역사학 교수가 한 말을 인용해본다:

Hahn Moo-sook. She was known for the enormous amount of time and energy she put into historical research before she picked up her author's pen to write about the past. For *Encounter*, for example, she read both government documents such as the Veritable Annals of the Chosŏn dynasty and the private writings of Tasan. That is why I feel comfortable asking my students to read her fiction. From her, they can learn what they can never learn from me, how people in the past actually thought and felt. (한무숙은 소설을 쓰기 전에 역사를 얼마나 오래동안, 그리고 많이 연구하였는지 누구나 안다. <만남>의 경우만 보아

도 이조실록같은 정부 문서와 다산의 개인 글을 읽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소설을 학생들이 읽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학생들은 한무숙의 작품을 읽으므로서 나한테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운다, 즉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 말이다.) (Baker 2008)

또 다른 각도에서 나 자신의 경험을 말해 본다.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이 미국의 대학 안에서 세 완전히 다른 학과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조지워싱턴 대학 동아시아어문학과에서 제공되는 번역작품을 통해 읽는 한국 문학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종교, 미술, 언어학, 문학교수가 공동으로 가르치는 아시아 인문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여성학 과목에서 이었다. 이 중 내가 가르치는 인문학의 과목에서도 <만남>이 교과서로 채택했는데 이 것은 내가 내 어머니라 넣으려고 애 썼던 것이 아니라 중국 문학 전공하는 동료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하여 넣기를 우긴 것이다. 학기 말에 이 과목을 학생들이 평가를할 때, 여러 나라를 다루는 7개의 교과서 중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 책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Encounter*를 택한 학생들이 제일 많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남>의 영역이 미국의 대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니 여러 서평에서 찬사를 받았는데 Amazon.com을 보면 영어권 밖에까지 더 넓은 세계로 퍼져 나가서 판매되고 있으니 첫 번 선보인 것이 대출판사가 소개하였기 때문인 것이 분명하였다. 이어서, 문학 전문지, 도서, 단행본, 교실 안에서 진지하게 토론되고, 다른 여러 나라 말에서도 그 장편 소설을 번역하는 시도가 꾸준히 계속하였다. 여기 첨부하는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다운 불어 번역이 프랑스에서 출판이 되었고 그 출판사는 계속 한국 인문학 저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다른 언어들로 폴란드 말, 체코 말에 이어 최근에 중국어로 출판 되었는데 중국말은 역시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점은 여러 교수, 학자, 학생들도 동의하는 것인데 번역자 김옥영은 한무숙 추도문집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 “대학에서도 한국학 전공이 곳이 증가함에 따르는 교과서 부족이 막심하다. 이런 공간을메꾸는 한무숙 선생님의 <만남>의 공헌은 진정 큰 것이다. ... 선생님의 능숙한 소설가의 기술이 독자들의 관심을 고무하는 동시에 그 속에 엮어진 한국 역사, 종교, 사회 구조, 모든 것이 섬세하고도 심리학적으로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만남>은 진실한 뜻에서 한국 문화 일체를 펼치는 중대한 걸작이라고 나는 믿는다.” (김옥영 1993: 120)

이렇게 <만남> 번역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외국에 한국 문학이 존경받는 길로 소개되어 나가게 되었으니 한국 문학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일반 한국학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⁴

그러나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 된 도서들은 처음부터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대중들이

4 이상의 서평에서 동떨어진 서평이 하나 눈에 띈다. 그것은 캐나다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의 김기수 교수의 것인데 소설의 취지를 완전히 못 알아들은 데서온 듯 하다. 서평의 최종 문장에서 주는 결론이 이를 설명한다: “‘true’ Christians are often hard to find among Koreans although too many of them are officially Christian.” (한국인들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기독교인은 찾기 힘들다.) Ki Su Kim, the canadian Asian Studies Association Review.

쉽게 접근하지 않게 되고 근래 세상을 떠들게 한 신경숙이나 한강의 작품들처럼 베스트셀러리스트에 올라가는 등은 꿈에도 바라지 못했다.

<역사는 흐른다>의 번역본

한무숙의 <만남>이 그의 생의 마지막 장편소설인데 비하여 그의 <역사는 흐른다>는 그의 아직도 20대 때 쓴 최 초기 작품의 하나로 1947년 대 국제 신문사의 공모에서 대상을 타고 1948년 백양당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는데 초판 5,000권이 20일안에 매진이 되었다. 그 후, 1950년과 1956년에 정음사에서 각, 각 제 2판, 3판이 출판되었고 그 후 수많은 재 인쇄를 하였고, KBS의 대하드라마로 연속 방송 되어1989년 7월 5일부터 1990년 8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청중을 사로잡은 인기작이었다. 워낙 길어서 원문에서 꽤 빛나간테가 많지만 본인은 대하드라마를 그렇게 오래 해야 하니 그럴 수 밖에 없었겠다고 순순히 받아 드렸다.

한무숙의 <만남>이 김옥영의 번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때, 1985년 나는 미국 연방정부 국립 인문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에 <역사는 흐른다>의 번역 보조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젊은 나이에 신청액을 좀 받으면 물론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것이었으나 또 연구비를 받으면 꼭 끝을 맞춰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마감일을 만드려는 것도 목적의 하나였다.

유감스럽게도 익명 심사에서 한 사람은 극찬을 하였으나 또 한 사람은 작품 자체를 문학적으로 평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한무숙 작품은 한국의 canon (인정받은 정전) 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미국에서 존경받는 더 연노한 문학 교수라 그의 말이 더 권위있게 받아 들여져 한국 문학을 전혀 모르는 미국인 책임자들이 이 번역 사업을 보조하는 것은 모험적이라고 단서를 내려 결국은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그 당시 워낙 한국 문학에 종사한 전문가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말투로 나는 족히 누가 그 익명 심사자인 줄 짐작을 할 수 있었다. 칭찬을 한 사람은 소설 문학 전공이고 한무숙에 대하여 잘 아는 교수인 것 같았고 그냥 무시하는 태도로 쓴 사람은 고전 전문으로 현대 소설을 조금도 다루지 않은- 교수인 것이 확실했다. 그 때 왜 한무숙이 무명인이라는 전설이 나돌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이런 경우 흔히 다른 평론가의 말을 듣고 제대로 모르는 입장에서 남에게 해를 준 이런 익명의 비판자들에게 대어 들 수도 없는 일이었다.

사실, 본업이 언어학인 나는미국의 한 대 대학의 교수로서 그리고 몇 사회 단체의 지도자 노릇까지 하며,한국학 제 행사에 참석하고 주최도 하며, 언어학 연구를 계속하는 동시, 일반적 교수 행정 활동도 하면서 한무숙의 깊은 철학적, 심리학적, 민속적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과 그의 수려한 문장으로 쉽지 않은 번역에 적합한 시

간을 내기는 계속 어려웠다.

그래서 보조비를 안 받은 것은 어떤 면으로 pressure가 내려가 나를 편안하게 해 주는 점도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공적인 보조 없이, 개인적으로 마감일로 기지 않으며 유유히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번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신 포도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기가 죽어 있었다. 누구도 이렇게 거절을 당할 때마다 자신에 대하여 재 검토를 해 보고 자신감마저 줄어들고 용기를 잃기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 때, 당시 정신문화원 류승국원장이 그 말을 듣고 책임자들과 의논한 결과 격려하는 의미에서 일종의 조그만 금액의 보조를 상같이 주었는데 공고된 프로그램으로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장려상 같은 것이어서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다. 결국, 이 보조금은 양은 많지 않았으나 나한테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도록 작은 불씨를 살려 주어 그 프로젝트는 계속이 되었다.

그 때도 가능하면 외국 기관의 보조를 받고 하는 한국학 일이 한국학의자리 잡음에 공헌한다고 생각하여 그 쪽에서 받아보려고 하였었지만, 드디어1990년 나는 문예진흥원에 한국문학 번역출판 보조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다행히도 결과가 좋았고, 곧 3년 계획 세부 계획서가 통과하여 두 가지 중요한 보조를 얻게되었다. 우선 마감 날짜가 또 뚜렷이 정해졌고, 무엇보다 교열자를 쓸 중요한 예산이 생긴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 본업에 못지 않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두 번째 직업을 얻은 양 번역에 정성을 다 하였다.

일단 초고가 나왔을 때, 미국 저자들이 보통 하는 대로 교열자(copy editor)를 구하다가 (예를 들어 한 문장마다 25번을 고쳐 쓴다는 이창래 작가도 교열자의 도움을 받는다.) 문학 원고를 다루는 전문 교열자가 아니고 보통 때 내 언어학 논문의 교정을 보여주는 교열자에게 보내보았다. 그 교열자는 샘플 번역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너무 좋아하며 흥분하여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 때 그 교열자는 나에게서 너무 멀리 살았다. 한국 문화에 대하여 눈썹만큼도 모르던 그가 보낸 수정본은 너무나, 너무나 실망이었다. 의문이 나면, 번역 관련 의논은 간단히 할 수 없는 것이라 긴 통화를 하면 너무 비용이 들고 (그 당시에는 장거리 전화 값이 만만치 않았다) 편지를 쓰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 자기 혼자서 임의로 수정 해 보냈는데, 도저히 그대로 쓰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일이 다시 써야 해서 할 수 없이 수정 이전의 원고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많은 시간을 들여 겨우 원상복구의 길로 들어 원고를 마무리 했을 때, 여기에 불운이 겹치어 거의 다 끝날 무렵 내 개인 컴퓨터가 완전히 죽었는데 경고 종이 울렸을 때 살리려고 허둥 거리다가 backup disks까지 저장해 놓는다고 복사를 의뢰 하듯이 급히 네 군데에 재 저장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모든 파일에 파손된 파일이 복사되어 완전히 다 읽은 경험을 하였다. 이 동네 컴퓨터 회사를 포함하여 컴퓨터 천재라는 사람들 다 연락하여 시도 해 보았으나 “0”로 덮어쓴 files들은 영원히 없어지고 말았다.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학기말 논문을 제 시간에 못 내면서 이러한 변명을 했으면 핑계로 보고 안 믿었으리라. 이 일생 같이 살아 온 사람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은 허무 그 자체였고 이 경험은 내 번역 프로젝트에 새로운, 심각한 지연을 가지고 왔다.

여기에서 제일 치명적이었던 것은 그 때 아직도 원작자가 생존해 계셔, 일단 다 끄낸 것을 가지고 한 꺼번에 보여드리며 질문이 있는 몇군데를 확인할 작정이었는데 어머니가 1993년 일월 세상을 떠나시니, 몇 군데 정말 못 알아들었던 부분은 영원한 수수께끼가 되었고 최고의 노력을 한 연구와 최대한 그럴 듯한 가정을 해 보아도, 원 의미와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1985년에 시작한 이 번역 사업은 15년이 넘어 드디어 번역이 끝나 출판사를 찾을 때가 되었다. UC Berkeley 출판사의 Betsey Scheiner 편집인은 <만남> 출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 사실은 내가 다른 장편소설 번역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해 주었을 때 그 것도 우선 그 때까지만 끝난 초고라도 보내 보라고 하여 보내니 대단한 흥미를 보이고 번역이 끝나면 꼭 자기 출판사에 제일 먼저 제출하라고 하며 전화상으로는 사실 <역사는 흐른다>가 <만남>보다도 더 마음에 들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 1989년에 오고 간 말이고 번역이 끝났을 때는 Scheiner 씨는 은퇴를 했고 새로 편집장이 다른 사람이 왔는데 답장도 없다가 너무 밀린 일이 많아서 답장을 안 받을 것이라는, 틀에 넣은 것 같은 email을 보내왔다. 드디어 가까스로 연락이 되어 전화를 하는 중, 자기의 새로운 편집 정책은 외국 현대소설의 번역은 내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서 그 전에 그 출판사가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반응과는 너무 대조가 되고 나를 놀라게 하고 실망시켰다.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보기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국제 출판 관습/윤리로 보아 무게 있는 출판사나 학술지 등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시 여기 저기 지원하여 입학된 곳 중에서 골라 한 학교에 가게 되는 것과 달라, 한 곳에만 보내어 안 되면 다음 기관에 보내는 것이라 출판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릴 수 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무명 심사위원이란 진실로 예측하기 어려워 완전 공정하고 제출한 작품을 충분히 이해할 능력과 지식, 그리고 흥미가 있는 사람이 심사원이 된다는 꿈같은 상황을 기대하기 힘들다.

<역사는 흐른다>의 번역도 쉽게 출판이 될 줄 알았던 것이 또 여러 출판사를 통하게 되었는데, 지면상 각 각 여러 종류의 이유로 실패한 것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강 짐작해 볼만한 점은 몇가지 종류로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우선 어느 작품이라도 누구의 취향과 수준에 다 맞추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아무도 이 작품이 아니라 어느 작품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책이 출판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볼 때에는 우선 그 책이 사회와 학문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책인가?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어떤 수정만 하면 꽤 좋은 책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하며, 평가하는 사람이 전체 사진을 잘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무슨 선입견을 가지고 꼬집기 시작하면 흠을 잡아 내기 어렵지 않고 그로 인해서 그 책은 출판 불가능한 책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번역이란 고치고 또 고쳐도, 다시 고치고 싶어지는 게 그 성분이니 번역

자 자신도 그런데 남이 꼬집기는 더욱 쉬운 것이다.

〈만남〉의 경우도, 〈역사는 흐른다〉의 경우도, 그 번역본의 출판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여 짐작이 가는데 방해가 된 몇가지 선입견은 (1) 피상적으로 너무 편안한 삶속에 사치로 글 쓰는 듯한 인상을 준 한무숙 작가의 신분 자체에 대한 적대심; (2) 매마른 것으로 알려진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거기에 또 한국인이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데, 그것도 저자의 딸이 한 것이 작품이 좋아서보다, 영어를 잘 써서 보다 자기 어머니 것이라 할 것이라는 의심에다가 (3) 무엇보다 한무숙 소설, 특히 원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용감히(?) 번역본의 평가를 피상적인 여러 면에서 받은 인상 등이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역사는 흐른다〉의 경우에도 〈만남〉 때와 같이 진실로 자격있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한무숙 작품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사실이다. 드디어 〈역사는 흐른다〉는 And So Flows History라는 제목으로 된 영역판이 미국의 대 대학출판사인 하와이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게 되었다. 여러 출판사를 거치기는 했어도 이미 큰 대학에서 작품이 나온 한무숙의 두 번째 출판은 순탄한 편이었다. 특히 하와이 대학 출판사에서 내 언어학 책을 출판한 일이 있고 그 때 같이 일했던 원고 수집 편집인 Patricia Crosby가 상임 편집인으로 승진 되어 있어 서로의 신뢰와 인정이 같이 일하는 것을 무척 편안하고 수월하게 해 주었다.

And So Flows History

〈역사는 흐른다〉가 당시 발행수가 가장 많던 〈국제신문〉의 장편모집의 응모작품으로 수석으로 당선 되었다가 그 신문이 정치적 이유로 폐간 당하자 그 신문의 주필이던 송지영이 새로 창간한 〈태양신문〉(현 〈한국일보〉)에 연재되고 1948년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었을 당시, 해방직후여서 책이 많지 않았던 때라 초판이 20일 만에 매진 되었고 전문적인 문학평론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한무숙 육필 참조).

이렇게 출판된 And So Flows History는 나온지 13년이 넘었어도 매진 안 되고 아직도 판매되고 있으나 이 책의 지속성은 이 책이 대 출판사에서 여러 전문 학술지, 신문, 잡지, 등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서평을 실었는데 대체적으로 또 호평을 받은 데서 오는 중요한 결과로 인하 것이었다. 여기 몇 개만 발췌문을 싣는다:

“Hahn’s writing has great strength and vitality. She has a sweeping narrative style and meticulous attention to detail. Strong characterization of men and women are set against Korea’s tumultuous historical period. The details of Korean life during the last period of the dynasty, and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are authentic because the author knew of or lived in that time. The lives of the high class, the education for civil service, and the breakdown of the stratified class structures are convincingly depicted. This is the best and most original literature of the colonial period by a Korean author. The translations by Hahn’s daughter Young-Key Kim-Renaud are intimate and seamless.” (한 [무숙]의 글은 힘차고 활력이 있다. 그는 통크게 씩쓰는 스타일로 서술을 하고 섬세한 묘사를 한다. 남성과 여성의 강한 인물들이 굴곡 많은 역사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다. 왕조의 황혼 시기와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들의 생활은 세부까지 저자가 직접 경험하였기에 정통성이 있어보인다. 상위 계급, 과거를 위한 교육, 층층의 계급 구조의 붕괴도 실감나게 묘사되어있다. 이 책은 한국인이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쓴 한국 문학 작품 중 최고요, 가장 창의성이 있는 것이다. 한 [무숙]의 딸 김영기의 번역은 친근하고 이음새가 없다.) —Bill Drucker, Korean Quarterly (한국학 계간지), Winter 2005/2006.

“Beyond being an interesting Korean novel that is now available in English, I envision that this work will have strong merit as a teaching tool in the classroom. The translation of the novel by Young-Key Kim-Renaud, Hahn’s daughter, is excellent and well captures the rhythm and flow of the original Korean text. Consequently used as a reading in a Korean culture, literature, or religion class, this work will greatly assist students in appreciating the range and syncretic nature of customs in late Chosŏn and early twentieth century Korea, not always an easy task for instructors. Accordingly, I highly recommend this work and welcome a valuable addition to the materials available for teaching Korean culture.”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한국 소설인 것을 넘어, 이 작품의 큰 장점은 교실에서 교재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무숙]의 딸 김영기의 번역은 훌륭하고 원작의 리듬과 흐름을 잘 포착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문화, 문학, 종교에 관한 참고서로 쓰면 학생들이 조선 말기와 20세기 초 한국의 관습의 폭넓고 다양한 모습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하기가 교사들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 작품을 교재로 추천하고 환영한다.)—by Michael J. Pettid, Asian Folklore Studies (아시아 민속학 학술지), 2006

“The novel itself is terrific: recounting slave rapes, bastardy, underground liberation movements, mysterious overseas benefactors, Japanese brutality, and a collapsing aristocracy, it is a riveting eye-opener into Korean history and an invaluable addition to collections supporting Asian literature. Essential. Lower-division undergraduates through faculty; general readers (소설 자체가 굉장하다: 노예의 겁탈, 서출, 지하독립운동, 무너지는 양반계급 이야기로 이 책은 한국역사를 시선을 집중하여 보게한다. 필수

의 책이다. 대학 일 이학년생부터 교수까지, 그리고 대중에게도.). —by T. Carolan, Choice (선택, 도서관학 학술지) Vol. 43, Iss. 6, February 2006.

“The most dynamic moments in the novel are those where individuals suddenly find within themselves the strength to overcome their own inclinations and forget themselves, as they generously, selflessly turn toward others in greater need. That, always, is the most beautiful thing we could hope to find, anywhere.” (이 소설에서 가장 역동적인 순간은 개개인들이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관대하게 희생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성향을 극복하고 자신을 잊는 힘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다.—by Anthony of Taize, Acta Koreana (한국학 학술지)Volume 9 Number 2, July 2006.

“Originally published in 1948 to critical acclaim, Hahn’s novel has remained popular with Korean readers, and it is easy to see why. The novel charts many major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hanges in Korea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until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and does so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intersecting lives of various characters from a representative cross-section of Korean society during that tumultuous fifty years. As can be guessed, the novel requires a reader’s full attention, and readers will be thankful for the inclusion of a listing of principal characters with brief biographical descriptions, family trees for the three main families, and a glossary of cultural and historical terms. … Despite the story’s complexity, there are two central elements: first, the nature of accidents and their unintended consequences; and second, the malleability of some – if not all – human beings, for both good and ill. (1948년에 처음 출판되어 전문인들에게 찬사를 받은 한 [무숙]의 소설은 한국 독자들에게 계속 사랑을 받아왔는데 왜 그랬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19세기 말부터 1945년 일본에서 해방할 때까지 주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찬찬히 그려놓는데, 그 방식이 굴곡이 심한 50년동안 한국 사회의 각 층의 대표적 인물을 등장 시키고 그들의 생활이 서로 교차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이 소설이 독자가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주인공들의 묘사와 세 가족의 족보,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 어휘의 설명도 들어있음을 고마워 할 것이다. 이야기는 복잡하지만, 두 개의 요소를 주목할 수 있다: 첫 째, 우연과 그 때문에 생기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둘 째, 거의 모든 인간이 선과 악 사이에서 뒹굴 수 있다는 점)—by Gregory N. Evon, Asian Studies Review (아시아학 학술지), October 2006.

“Hahn is superb in her delineations of the complex inner workings of a well-to-do yangban family in the waning years of the Chosŏn dynasty…One of the successes of the novel…is the vivid and detailed delineations of these women who make up the very core and engine of these households, and worthy

of especial mention is the view of family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lave family…a view that is mostly missing in historical documents.” (한 [무숙]은 조선의 기울어져가는 시기 한 유복한 양반가의 복잡한 내부 세계를 기막히게 그린다. 이 소설의 성공적인 면 중의 하나는 이러한 가정의 중심과 원동력이 되는 여인들의 실감나고 섬세한 묘사이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가족의 생활을 노예들의 각도에서 본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역사 기록에서 대부분 안 보이는 관점이다.) —by Kichung Kim, Journal of Asian Studies (아시아학회 학술지) Volume 66 Number 3, 2007.

어떤 때는 기대도 안 하던 곳에서 자진 서평을 받는다. 이제 고인이 된 한국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던 Pennsylvania 대학의 일본 역사학 전공 G. Cameron (Cappy) Hurst교수는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다음과 같은 내용의 e-mail을 보내왔다:

“By the way, I finished And So Flows History, and loved it, You did a great job! I read it back to back with Three Generations and Anne’s translation of Mujong, eschewing any readings in Japanese history over the break! Anyway, I liked Flows much better than the others!” (아, 참, And So Flows History를 다 읽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 당신 참 잘 했어! 겨울 방학 동안에, 일본 역사에 관한 책은 다 내려 놓고, <삼대> (염상섭) 와 Anne의 <무정> 하고 그리고 이 책, 세 권을 연달아 읽었는데 나는 단연코 Flows (흐른다)가 훨씬 다른 것들보다 좋아.”

이 서평은 최고로 짧지만 참신한 것이었다. 일반 한국 평론가들 중, 이 이해관계 없이 공정하게(?) 본 이 학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And So Flows History가 영역이 된 후 에스토니아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탈린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프랑스어 외 다른 외국어 번역의 경우에서와 같이 내가 알아 들을 수 없는 말들이고 서평이나 논문이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아 목록에 넣는 정도로 그친다.

The House of Pomegranate Trees

The House of Pomegranate Trees (석류 나무집 이야기)는 최진영 (Jin-Young Choi) 과 Suzanne Newton 이 번역원 보조를 받고 같이 번역하여 근래 완성한 것인데 인쇄한 것은 없고 E-Book으로만 나왔다. 아직 서평을 본 일이 없는데 다른 두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것에 비해 임팩트가 클 것 같지 않다.

한무숙 작품의 영역을 분석한 논문 / 저서 들

위에서 언급한 서평들은 대부분이 제한된 지면에 간략하게 평을 한 것인데 비하여 영역이 나오기 전에는 알아듣기 어려웠을 영어로 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 중 몇 개만 간단히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Kim, Yung-Hee. 2004. "Dialectics of Life: Hahn Moo-Sook and Her Literary World," in Young-Key Kim-Renaud (ed.), *Creative Women of Korea, The Fifteenth Through the Twentieth Centuries*, 192-215.

Kim, Yung-Hee. 2010. *Questioning Minds: Short Stories by Modern Korean Women Writer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Hydrangea (수국) 포함]

Kim, Yung-Hee. 2017. *Gendered Landscapes* [Halo around the Moon (월운) 포함]

Park, Chan E. 2012. "Flow and Irony: Locating Literary Modernity in Hahn Moo-Sook's Retrospective Gazes (Review Article)," *Korean Studies* (한국학 학술지), University of Hawai'i Press, Volume 36: 123-144.

Chan E Park, "Flow and Irony: Locating Literary Modernity in Hahn Moo-Sook's Retrospective Gazes," the 16th Hahn Moo-Sook Colloquium in the Korean Humanities, Washington, DC.

Philippe Thiebault, "Hahn Moo-Sook's Call for 'True' Humanity: Meditation with Tasan Ch'ng Yag-Yong in her Novel Encounter," the 16th Hahn Moo-Sook Colloquium in the Korean Humanities, Washington, DC.

Yim, Hunyoung, 2008. "Cognizance of Korean History in Hahn Moo-Sook's Literature," the 16th Hahn Moo-Sook Colloquium in the Korean Humanities, Washington, DC.

번역자

근래에 와서 번역자에 spotlight가 좀 비치긴 했지만 번역자들 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는데 번역자들이 너무 오래 동안 그늘에 들어서 있었다. 아직도 많은 책은 번역자 이름이 거의 눈에 안 띄거나 아예 없다. 번역자들이 더 존경을 받는 경향이 생길 때 더 좋은 번역자들이 나온다고 믿는다. 그리고 특정한 인간들에게 더 좋은 번역자가 된다고 믿는 것도 틀린 생각이라고 본다. 그래서 목표언어의 원어민이 더 좋은 번역자가 된다는 논쟁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무턱대고 원 작품의 언어를 그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목표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한테 교정을 받아 내는 것이 이상적일고 믿는 것도 미신이라고 본다. 번역도 창작이다. 단 원 작가의 뜻과 정취를 전하는 조건아래 일하는 창조자이다. 거기에 뚜렷한 만병통치의 비결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한무숙

문학작품의 번역자들은 외국언어의 원어민보다 한국인이 단연코 더 많다. 여기 있는 진실된 이유는 그의 작품의 난이도가 그만큼 높아서라고도 볼 수 있다.

번역자들이 번역하면서 느끼는 것도 무시 못할 일이다. 처음 <만남>을 외국어로 번역한 김옥영씨는 3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한무숙씨는 천재였다"라는 말을 후렴같이 되풀이한다. 김옥영은 원래 한무숙 작품을 자기가 원하여 번역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단 그 전 해 번역 신인상을 타서 일종의 부상으로 대작으로 기대하던 작품을 연재하는 동시에 번역을 하게 되었다. 곧 서사로 일하면서 한무숙이 문인 중 제일 많이 번역이 된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통하여 작가를 발견하고 날이 갈 수록 끊임없이 놀라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존경심과 그에 대한 호기심이 늘었다. 그야말로 한무숙의 결혼 처럼, 미리 만남 적도 없고 만날 기대도 안 한 두 사람이 중매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산 부부같은 관계가 되었다.

좋은 부부 관계처럼 이런 인연은 번역자에게도 성장하며 자기 원래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고국이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떠나 오래 동안 외국을 자기 나라로 만들고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던 그가 새로운 정체성을 느끼고 계속 자아 발견을 하며 환희를 느끼고 자기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만남>을 불어로 번역한 Philippe Thiebault교수는 한무숙을 나중에는 만났지만 그의 작품 <만남>에 역사적, 문학적, 철학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하여 논문에 인용까지 발표를 하였다. 이 철학 교수는 나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만남>에 매료되어 있어 한무숙의 딸을 만났다는 사실을 너무나 행복해 하였다. 당시 율곡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는데, 내가 <만남>을 불어로 번역 할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서슴지 않고 그러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 문학 번역원에 보조 기금을 신청하도록 권하여 자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 사업에 심신을 바쳤는데 마치 기가 막힌 보배를 찾은 전율을 느끼고 <만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4년동안 정열적인 사랑으로 번역하였다.

이 교수는 번역이 끝난 후 20세기 가장 저명한 철학자요, 인문학자인 Paul Ricoeur에게 원고를 보내 보았다. 그 것을 읽은 리쾨르 교수는 티에보교수와 만나자 하여 그의 자택에 초대까지 하였고, 거기서 <만남>의 번역을 다 읽었다고 하며 이 책이 꼭 출판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나에게 흥분하여 e-mail을 보낸 것이었다. 이 경험이 티에보 교수에게 꿈같은 일이었을 것이 확실하고 그 때 받은 소식은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할 고맙고, 반갑고, 하늘에서 오는 메세지였다.

티에보 교수의 불역은 원문을 철저히 공부하여 완전히 알아들었고 불어의 문장이 수려하여 한국문학사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2008년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한무숙을 기념하는 한국인문학 콜로퀴엄에서 발표한 그의 논문 (Thiebault 2008)은 한무숙의 <만남>에 대한 놀람과 사랑과 존경, 무엇보다 그의 행복을 보이는 선언문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다루는 범위와 질에 있어서 한무숙 작가가 늘 우러러보던 Dostoyevsky

의 작품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는 <만남>을 읽으며 Victor Hugo의 Les Misérables를 자주 생각나게 하였다고 하였다. Victor Hugo의 작품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힘을 느꼈는데 이 것이 이 작품의 거룩하고 영감을 주는 고도의 질에서 온다고 보았다.

나의 번역자로서의 경험은 위 두 분과 또 다른 것이었다. 한무숙 소설 중에 <역사는 흐른다>를 영역하여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고등학교 때 부터 있었다. 내 생각에 한무숙 작품 중, 이 작품이 가장 정열을 가지고 쓴 것이라 믿는다. 전통 양반가의 규수로 자라면서도 친정이 원래 진취적이라 서구와 현대문명에 접하고 거기 매혹되어 있던 특수한 “신여성” 한무숙은 18세에 결핵을 앓아 화가의 꿈과 유학의 계획을 접고 대신 요양원에 갔다가 나와서 만나 본 일도, 들어 본 일도 없는 부친의 소시적 친구의 아들과 형식적으로 창경원에서 많은 가족들을 동반한 채 꼭 한 번 만나보고는 결혼을 했다. 근본은 같았으나 결혼 해 살게 된 환경은 숨막힐 정도로 보수적인 집안이었다. 새댁이 그런 환경에서 별려 놓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 특히 유화를 작성한다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꿀 지경이었다. 처음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을 때 배 속에서 새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할 의무와 의미를 느꼈다. 이런 하늘이 준 인연에서 나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한국 문학에 공헌을 했다고 <만남>의 폴란드 어 번역본의 서문에 썼다.

그 당시 모든 사물과 현실에 대한 생각이 깊은 감정을 자아냈을 뿐 아니라, 그 창조적 기운이 그림에 넣을 수 없으니 속에서 “쓰고 싶다!”라고 나오는 비명에 한무숙은 남이 다 자는 순간 지친 몸을 가로 누이고 벽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원고를 썼다 한다. 사실은 그 기가 막힌 환경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글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일생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 했다. 원고지가 귀한 시절 손수 줄을 쳐 주어 원고지를 만들어 주었으니!

한무숙은 쓰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을 뿐 아니라 병원 생활을 조금도 낭비 안하고 누구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책을 읽은 그는 비범하게 유식하였고, 또 계속 모든 일에 흥미를 가지고 깊은 관찰을 한 데다가 기가 막힌 기억력을 겸비하여 한무숙의 장편 소설은 짧은 얘기 어머니가 쓴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가 강렬하게 느꼈던 모든 사정과 인물들, 역사적 사건이 남에게도 그렇게 공감을 주었는데 그의 딸인 내가 어떻게 하여 무심히 읽을 수 있었겠나. 내 주위의 인물들이 한무숙의 소설 속에서 모두 살고 있었다.

나는 전공이 언어학이었지만, 학부는 영문학과를 졸업 했고 사랑 방 개 경 읽듯이 여러 문인과 예술인이 드나드는 환경에서 글 쓰는 사람은 무척대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러워 하며 자랐다. 그래서 창작은 내 능력 밖이라 하여도 번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나를 그 세상과 이어 주게 할 것 같았다.

한편, 나는 한무숙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특히 <역사는 흐른다>를 번역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남한테 말은 못해도, 은근히 있었다. 물론 교정 보아줄 사람을 적당한 보수를 주고 쓸 수 있다는 것은 큰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제일 강한 동기는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다른 한국인들에게도 인

기있는 이 작품을 세계와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그렇게 한국을 더 깊게 알게 도와 주고, 알고 싶게 하고 싶은 사람이 첫 째 불란서인 남편이요, 둘 째 우리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다 못한 번역

한무숙의 외국어 번역 중 이탈리아와 스페인어로 들어 갈 수 있었는데 둘이 서로 다른 이유로 빛을 못 보았다. 하나는 스페인어로 한 스페인 분이 영어로 번역된 Encounter를 읽고 너무 감격하여 전 책을 번역하여 나한테 두꺼운 원고를 보낸 일이 있다. 보내면서 그 원고가 출판이 되게 허락해 주고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스페인어과 동료 몇 사람에게 읽고 의견을 달라고 하였는데 모두 너무 질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천도 장려도 안 한 일이 있다. 사실은 이 경우 번역이 월등 좋았어도 허락하기 힘든 일이었다. 우선 그 여성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영문을 보고 간접 번역을 한 것을 어떻게 볼지 몰랐다.

다른 것은 이탈리아 역본이었는데 그 번역자는 한국말이 아주 유창하고 고전까지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그 번역을 출판하고 싶어하는 이태리 출판사까지 있는 사람으로 한무숙재단에 번역 보조 신청을 하였다. 교황님이 흥미가 있어 하신다는 소식에 더욱이 힘을 얻은 이 프로젝트는 정말 이상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한무숙 재단은 그 신청을 받아드리고 거의 계약까지 할 단계에 와 있었는데 난데 없이 그 사람이 표절을 했다는 이유로 AKSE (유럽의 한국학 단체)에서 제명처분까지 내리고 난리가 났으며 그 앞장을 서서 고소를 한 한국 학자가 나와 친한 동료였는데 너무 열열히 이태리 번역을 그 사람을 시키는 것을 반대하여 거기에 그만 손을 들고 말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나의 판단 부족이었던 것 같아 후회를 하고 있다. 언제고 다시 하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그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 텐데 다시 그 일을 잡을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다.

여기 또 하나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가 또 있다. 한무숙은 일본 사람들도 칭찬할 정도로 일본어 실력이 높았을 뿐 아니라 문장이 수려하여 돌아가신 후 추도록에 일본의 유명한 작가 曾野綾子 (Sono Ayako)씨도 다음과 같이 썼다 “Your mother [Hahn Moo-Sook] has been a person with pride, tenderheart and overwhelming intelligence which was seen in the past generation of Japan and rarely seen nowadays. As your mother has spoken beautiful Japanese, I have often forgotten the cruel incident that Japan has committed upon Korea. In other words, your mother was not a Japanese or a Korean to me, but a very friendly and profound person and I was relieved from tension whenever I was beside her.” (당신의 어머니 한무숙은 자만심, 따뜻한 마음, 그리고 엄청난 두뇌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은 일

본에서도 그 전 세대에서도 보고 요새 사람들에게서는 잘 찾을 수 없습니다. 자당께서 아름다운 일본말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끔 일본이 한국에 가져 저질은 잔인한 행동을 잇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당신의 어머니는 나에게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저 정답고 깊은 인격자로 옆에 있으면 저절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Ayako 1993: 354).

그런데 “한무숙번역세계조명”이라는 제목 아래 발표를 하며 한무숙 작품의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존경 받는 출판사에서 나온 일본어 번역물이 없는 것이 진심으로 유감스럽다. 1976년 한국에서 나온 현대한국문학 선집을 그대로 일본말로 옮겨 김소운 번역으로 같은 제목으로 한국의 同和出版社와 일본의 冬樹社가 공동 출판한 책에 “그의 감정이 있는 심연”이 “感情ある深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고작이었고, 한무숙 별세 후 부군이 일본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뒤늦게 발견 된 『灯を持つ女』(등불드는 여인)의 원고를 일본의 權歌書房이라는 출판사가 그대로 사진만 찍어 책으로 묶어 놓은 것이 있다.

그 후 같은 출판소에서 “한무숙 전집”을 계속 낼 의도는 있는 듯, 우선 제 1권 (한무숙 韓戊淑文學全集① 축제와 운명의 장소 祝祭と運命の場所) 과 2권을(한무숙 韓戊淑文學全集② 대열 속에서 隊列の中で)내었는데 둘이 다 단편 소설이라 책이라 부르는 것이 또한 모순인 것 같다. 무엇보다 이 원고들은 우리 가족의 짐작으로 한무숙이 누구에게 부탁하여 일본 말로 번역을 시켰던 것 같은데 확인을 못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얻은 소식에 의하면 꽤 되는 분량의 원고 보따리를 한무숙의 부군이 일본 동창에게 출판하게 도와 달라고 하며 넘겨주었는데, 장래 출판 계획이 뚜렷하지 않고 우리 유족에게 연락도 안 와서 큰 가능성이었을 일본어 번역 출판의 기회를 놓치고 엉거주춤하는 사정에 놓이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새 식으로는 우선 저자 본인이 안 한 듯 하니, 그 번역을 한 사람을 찾아내어 출판 할 경우 번역자 허락도 받고 한편 번역의 질도 확인하고야만 번역 허가를 줄 수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한무숙 작가 본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본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여, 위에 인용한 소노 아야코 작가도, 방자여사도,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감동시킨 분이 정작 일본어로 작품이 소개 안 된 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고 꼭 가까운 장래에 누가 나서서 해 주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내 한무숙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어 흔히들 가지고 있는 듯한 선입견과 맞지 않게 한무숙 작품이 여러 학위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고 한무숙에 대한 학술대회까지 수 차례 걸쳐 열린 것으로 안다. 문학 잡지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도 궁극적으로 외국어로 번역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한무숙은 또한 명강의를 한 것으로도 기억된다. 어떤 것은 기록에 남긴 것이 없는데 혹시라도 누가 녹음을 했거나 초고 쓴 것을 가지고 있다면 모아 그의 연구 자료로 쓰게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일 것 같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돌아가신 후 계획한 단편집의 출판이다. 인제 나도 대학에서 은퇴를 했으니 한무숙 단편

집을 낸다고 “큰소리만” 한 때 찻던 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 시간이 있어서라기 보다 진실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이다. 한무숙은 오히려 장편보다는 단편으로 유명하였던 작가다. 그러니 외국어로 단편집을 내는 것이 그의 문학을 두리 두리 소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어머니 탄생 백세에 맞추어 했으면 그래도 명목이 셋을텐데 인제부터라도 열심히 해 보겠다는 약속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다.

결론

한무숙의 번역 세계는 연륜이 있고 험한 땅에서도 몇 번 실패했다가도 열심히 가꾸어 계속 꽃을 피어온 향기 나는 정원이다. 그 향정에는 어느 듯 씨까지 뿌려 새 싹도 나고 있다. 사실 내가 다른 정원에 정신을 더 팔지만 앓았어도 더 풍성하고 더 고운 정원이 되었으리라.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못 다 한 것이 후회가 아니고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며 어머니 다시 만날 때 까지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한다.

한무숙은 개척자이었다. 그의 세계적 안목과 지식, 그리고 몸에 밴 인간미는 한국 사람 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알면 알 수록 조금씩 점차 더 사랑하고 있다. 현재 폭풍우같이 세상을 휩쓸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젊은 작가들 처럼 외국 literary agent를 쓰고 PR에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만큼 이룬 것은 작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지난 날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끝나야 되지도 않는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인재 자리를 잡은 듯한 그 분야에 더 발전할 가능성이 계속 있을 것이다.

향정의 정원에는 가지 각색의 꽃과 나비가 있다. 한무숙의 작품은 도스토예스키, 톨스토이, 멜빌, 빅토르 유고, 버지니아 울프, 엔도 슈사쿠에 비교가 되었다. 그의 여러 종류의 작품이 멀리 멀리 전파되어 우리 인간들이 더 향기 있는 세상에 살게 되기를 바란다.

한무숙은 생전에 산 외교관이었다.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와 관심과 협력을 언제나 중요시 했다. 지금도 여기 모인 분들이 제 각기 조금씩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 번 더 다져보고 한무숙이 몇 백 살 될 때까지도 기리기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공헌한 하나 하나의 번역자들도 그 공을 인정 받고 중요한 외교관이 되었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날이 오고 있다.

첨부분: 한무숙작가 해외 번역 도서 출간 목록
(한국문학번역원 박찬우제공, 김영기 보충자료, 2018년 10월 25일 현재)

참고문헌

- Baker, Don, 2008. "Probability and Possibility: History and Historical Fiction," Commentary presented at the 16th Hahn Moo-Sook Colloquium in the Korean Humanities, GW.
- Chang, Ok Young Kim, 1993. "고 한무숙 선생의 <Encounter>," in 이호철/김진흥 (eds.) 한무숙 추도문집, 『풍요한 부재』, 서울: 한무숙재단, 116-120.
- Ch'oe, In-ho, 2000. "Literature as Encounter and Discovery, as Exemplified by Hahn Moo-Sook's Novel Encounter." In Young-Key Kim-Renaud and R. Richard Grinker (Eds.), *Creation and Re-Creation: Modern Korean Fiction and Its Translation*. Sigur Center Asia papers, No. 8 (2000). Washington, DC: GW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 Clark, Donald N. 1995. "Encounter: A Novel of Nineteenth-Century Korea (review)." *Korean Studies*, vol. 19, pp. 189-193. Project MUSE, doi:10.1353/ks.1995.0022
- Haboush, JaHyun Kim, 2001. "In Search of HISTORY in Democratic Korea: The Discourse of Modernity in Contemporary Historical Fiction," in Kai-wing Chow, Kevin M. Doak, and Poshek Fu, eds., *Constructing Nationhood in Modern East Asi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211-214.
- Kim, Ki Su. "Review of Encounter, Book Reviews of the Canadian Asian Studies Association.
- Kim, Mi-Jung. 1992. Hahn Moo-sook's Depiction of Korean Women in *The Hermitage of Flowing Water*, paper presented at the 1992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Session 101 (Modern Literatures in Japan and Korea. San Jose, CA, May 28-30).
- Kim, Yung-Hee, 2003. "Dialectics of Life: Hahn Moo-Sook and Her Literary World." In Young-Key Kim-Renaud, ed., *Creative Women of Korea: The Fif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Armonk, N.Y. : M.E. Sharpe. pp. 192-215.
- Lee, Jin-kyung, 2010. "Review of Questioning Minds: Short Stories by Modern Korean Women Writers by Yung-hee Kim,"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979-), Vol. 15, No. 1 (fall 2010), pp. 138-140. Published by Duke University Press.
- URL: <https://www.jstor.org/stable/41490264>, Accessed: 07-10-2018 22:35 UTC.

- Lee, Tae-dong and Brother Anthony. 1998. "Preface," *Korean Literature Today* Vol. 3, No. 4, Winter 1998: 3-4.
- Sono, Ayako 曾野綾子. 1993. "A Person with Pride and Tender Heart," in 이호철/김진흥 (eds.) 한무숙 추도문집, 『풍요한 부재』, 서울: 한무숙재단, 354-355.
- Taize, Brother Anthony of (An Sonjae), 2006. "Review of Hahn Moo-Sook's *And So Flows History*, translated by Young-Key Kim-Renaud," published in *Acta Koreana* Volume 9 Number 2 (July 2006.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p. 202 - 211.
- Hahn, Moo-Sook. *And So Flows History*. Translated by Young-Key Kim-Renaud. *Hawai'i Studies on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and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2005. xv 282 pages.
- McLeod, A. L. 1962. Review of *Collected Short Stories from Korea*. I by Yo-Sup Chu. *Books Abroad*, Vol. 36, No. 3 (Summer, 1962), pp. 339-340. Published by: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Oklahoma Stable URL: <https://www.jstor.org/stable/40117042> Accessed: 11-10-2018 04:30 UTC. (Out of the 14 writers of modern short stories, only two are women Choichong-Hi and Han Moo-Sook, both of whom get the honorific title "Mme.")
- Oh, In-Hwan, George Won, John T. Nugent, and Horace H. Underwood. 1976.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A Critical Bibliography,"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Korea Branch*, Vol 51: 65-103.
- Lee, Tae-dong and Brother Anthony, 1998. Preface, *Korean Literature Today*, Vol. 3, No. 4
- Thiébaud, Philippe, 2008. "Hahn Moo-Sook's Call for "True" Humanity, Meditation with Ch'ng Yag-Yong, Tasan, in her novel *Encounter* - A Philosophical contribution to enlightenment in a time of turmoil," paper presented at the 16th Hahn Moo-Sook Colloquium in the Korean Humanities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kw
- Yee, Danny, 2018. "Review of Questioning Minds: Short Stories by Modern Korean Women Writers by Yung-hee Kim," <http://dannyreviews.com/>.

토론문

Brother Anthony 안 선 재 (서강대 명예교수 / 단국대 석좌교수)

I would like to begin by thanking Professor 김영기 for asking me to comment on her presentation. At the same time I must congratulate her, her family, and the organizers of this symposium on the 100th anniversary of 한무숙's birth in 1918. Professor Kim has for many years worked extremely hard to promote awareness of her mother's works, both through translations and through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dedicated to her work, both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I was rather embarrassed that she should ask me to speak today, since I cannot help remembering that she came to see me many years ago, asking me to undertake the translation of some of her mother's works but in the end I had to tell her that I would not be able to undertake the task. The main reason was that I had already begun translating the poetry written by (usually) living Korean poets in whatever free time I had. Equally, though I do not think that I told her this, I have never been able to feel any strong sympathy for the fiction written in Korea, whether in earlier times or more recently. Fortunately, this is a personal problem, and as we have heard, others have worked extremely hard translating, reading and commenting enthusiastically on the works of her mother.

I think that obviously the most important translations into English of works by 한무숙 must be Encounter 만남 (1992) followed by And So Flows History 역사는 흐른다 (2005). As we have just heard, in 2016 the translation of The House of Pomegranate Trees 식류나무집이야기 was published in electronic format, but it is too early to see much critical or scholarly response to it.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short stories never have the impact of full-length novels and it is very hard to find

a way of publishing short stories so that they remain easily available. Mostly they are published in periodicals which, by definition, are soon replaced by further editions and often back issues are quickly out of print. Professor Kim's presentation covers in considerable detail the critical reception of the two main works and she is truly fortunate that so many critical commentaries have been published. One of the greatest problems facing translators and publishers of translations into English is that very few ever get reviewed at length in major publications. This is not a problem limited to Korean works, it is universal. It is well-known that translations of any kind only account for 3% of the books published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each year. Literary editors and reviewers simply have too many new titles to choose from, and prefer to give priority to work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Moreover, since Encounter was published in 1992, 20 other volumes of Korean fiction were published before 2000, then prior to 2012 another 60 volumes were published. Finally, since 2012, at least 80 volumes of Korean fiction in English translation have been published overseas. More important, the publishers and the readership have changed radically. Even just a few years ago, it was unthinkable that a major American or British publishing company such as Knopf or Penguin would be interested in a work by a Korean author. The first indication of a change came with the publication of Shin Kyeong-suk's Please Look After Mom 엄마를 부탁해 by Knopf and the resulting critical acclaim. As Professor Kim notes, the publication of Han Kang's The Vegetarian 채식주의자 and the award of the International Man Booker Prize was an epoch-making event as far as the popular reception of Korean fiction overseas was concerned. Not so long ago, the works being translated were those by writers who had received critical acclaim in Korea, the reviewers and readers of our translations were almost always academics or students in Korean Studies. No longer. In the last couple of years we have seen the publication of extremely popular works, often thrillers, by younger writers (and younger translators) such as You-jeong Jeong's The Good Son, Hye-young Pyun's The Hole, Jung Yewon's One Hundred Shadows and Han Yujoo's The Impossible Fairytale. This means that Korean fiction is now commercially viabl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can easily find readers, not because it is Korean but because it is fun. It has, in a sense, at last been "globalized" in ways it was not even a decade ago.

Translations of earlier works by Korean writers cannot compete with these in the modern market, their function is also different. Whether it be works written during the Japanese period or in the years following the Korean War, the main readership is today bound to be mainly among people seeking documentation for academic study and teaching, especially in the area of Comparative Asian Literary studies. "Documentary translations" designed to make Korean works available for those interested but without sufficient Korean will continue to find publishers and readers, but they cannot expect to be commercially viable without support from government or other institutions. This is the realm in which the works of Han Moo-sook will continue to stand out by their quality and historic significance, as works by a great writer who was also the remarkable mother of remarkable children. Thank you.